

# “‘이태원 참사’ 잊지 않겠다...안전한 곳서 편히 쉬길”

### 국가애도기간 종료...광주시청·민주광장 합동분향소 철거 광주·전남 추모객 6000여명...2030 중심 온라인 추모 계속

‘이태원 헬러인 참사’와 관련 국가애도기간이 종료됐지만, 광주·전남에서 애도의 물결은 계속되고 있다.

광주시청과 5·18민주광장에 설치된 합동분향소는 지난 5일 운영을 마쳤고 전남도 합동분향소는 6일까지 추모객을 맞고 운영을 종료했지만, 광주·전남 20~30대를 중심으로 애도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지자체가 운영을 시작한 광주·전남 합동분향소에는 총 3000여명(광주 1770명, 전남 1303명)이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5·18민주광장에서 운영한 무인분향소에는 추모객 3000여명의 발길이 이어졌다.

광주시청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은 ‘천국에서 별처럼 빛나길 기도합니다’, ‘Pray for Itaewon’, ‘누구나 안전한 대한민국 꼭 만들겠습니다. 좋은 곳에 가서 부디 영면하세요’ 등이 쓰인 메모지를 붙이면서 참사 희생자들에게 애도를 표했다.

전남도청 합동분향소에는 이번 참사로 친구를 잃은 시민이 방문해 ‘친구야, 좋은 곳에서 다시 만나자’는 추모글을 방명록에 남겼다.

이 외에도 추모객들은 방명록에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음에도 안타까운 일이 기어... 미안합니다. 깨어있는 시민으로 살겠습니다’, ‘유가족은 저희 국민이 책임지겠습니다’, ‘희생자와 유가족의 아픔을 함께 하겠습니다’ 등의 문구를 남겼다.

5·18민주광장에서는 베트남 유학생인 웬타빛튀(27)씨가 지난 1일 합동분향소에 방문했다가 자국민 중에 희생자가 있다는 소식을 접한 뒤 분향소에서 이틀간 자원봉사를 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민주광장을 방문한 시민들은 ‘이번 비극은 수 십년, 수 백년이 지나도 잊지 않고 기억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대한민국에서 더이상 참사가 생기지 않기를...’, ‘우리는 언제 안전한 나라에서 편히 쉬실 수 있을까요. 미안합니다...’라며 애도의 마음을 표현하는 글을 남겼다.

합동분향소는 국가애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철거

됐지만, 추모의 분위기는 이어지고 있다. 특히 온라인을 중심으로 애도를 하는 목소리는 지속되고 있다.

광주시 서구에서 거주하는 전솔희(여·26)씨는 앞으로도 왼쪽 가슴에 검은 리본을 달고 다닐 예정이다.

전씨는 “이태원 참사를 겪은 유족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계속해서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제 사회로 나가는 비슷한 또래에게 일어나 일이라서 더욱 가깝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특히 SNS를 중심으로 온라인 상에서 여전히 추모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또래의 아픔을 추모하는 게시글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것이다.

김민선(여·26·광주시 남구 백운동)씨는 본인의 SNS에 검은 리본에 ‘Pray for itaewon’이 적힌 사진과 “더 일찍 추모하지 못해 미안하다.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나의 친구들에게...”라는 글을 게시했다.

김씨는 지난 4일에도 분향소를 찾아 추모했지만 참사를 쉽게 잊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해 SNS에도 글을 올렸다고 전했다. 김씨는 “지금껏 참사들을 겪고 너무 쉽게 잊었던 것 같다. SNS에 글을 게시해 놓으면 뒤늦게라도 뒤돌아보며 기억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광주시도 합동분향소를 추모공간으로 전환



광주시가 지난 5일 국가애도기간이 끝난 뒤 기존의 합동분향소를 추모공간으로 바꿔 운영하고 있다.

하고, 온라인에 추모글을 남길 수 있는 추모관을 이어갈 예정이다. 합동분향소 철거 후 추모공간이 된 곳에는 6일 추모객들이 방문해 놓고 간 것으로 보이는 국화를 비롯해 커피와 도넛, 꿀 등이 놓여 있었다.

광주시가 마련한 ‘이태원 참사 온라인 추모관’에는 애도기간이 끝난 6일에도 수십 개의 추모글이

게시됐다.

한 시민은 “생각할 수도 없는 사고로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다. 부디 하늘에서 평안하시길 바라며 억울하고 마음 아픈 유가족들이 기운 냈으면 좋겠다”는 글을 남겼다.

/민현기 기자 hyunki@kwangju.co.kr  
/글·사진=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 제한 ‘무색하네’

### 광주시·5개 구 등 주최 행사 45건 중 40건서 일회용품 사용

지난 9월부터 두 달 동안 광주시와 5개 구 및 공공기관이 주최한 행사 45건 중 40건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에서 지난 2019년 전국 최초로 ‘광주시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를 제정한 것이 무색하게 광주시 공공기관이 일회용품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실태 모니터링’ 결과를 6일 발표했다.

모니터링 결과 40개 행사장에서 페트 생수병과

플라스틱 컵, 풍선, 비닐장갑, 종이컵, 행사 홍보단지 등 일회용품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11월 말까지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실태를 모니터링 한 뒤, 다음달 초 최종 모니터링 결과와 정책 제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오는 24일부터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라 식당·카페 등에서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등의 사용이 금지되는 등 일회용품 제한이 확대될 예정이다. 다만 정부는 향후 1년간은 위반 시에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유예 기간을 둘 방침이다.

/천홍희 기자 strong@

## ‘15년 이상’ 시설물 안전 점검 광주 동구 연말까지

광주시 동구가 7일부터 오는 12월 말까지 동구지역 노후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 및 실태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실태조사 대상은 준공 후 15년 이상 된 연면적 1000~5000㎡인 시설이다. 노약자·아동·장애인시설 4개소, 문화회화시설 1개소, 운동시설 2개소, 의료시설 6개소, 장례시설 1개소, 종교시설 8개소, 판매시설 4개소 등 총 26개소가 대상이다.

안전진단 전문 업체를 통해 시설물의 주요 변형·균열·손상상태 등을 종합 평가하고, 안전상태를 ‘양호’, ‘주의관찰’, ‘지정검토’로 구분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지정검토’로 분류된 시설물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제3종 시설물’로 지정할 방침이다.

제3종 시설물로 지정된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주체는 ▲시설물 관리대상과 설계도서 제출(지정·고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제출(매년 2월 15일까지) ▲정기 안전점검 실시 결과 제출(매 반기 말일까지) 등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임택 동구청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시설물의 잠재적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면서 “주민들이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안전한 동구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영광군, 상사화 국가 농업생명자원 신규 등록 정부지원금 받아 유전자원 유지·관리...농업소득 개발 집중

영광군이 상사화를 국가 농업생명자원으로 신규 등록했다고 6일 밝혔다.

상사화는 영광군의 군화(郡花)로 불갑산상사화축제를 대표하는 꽃이다.

영광군에 따르면 제주상사화, 진노랑상사화, 붉노랑상사화, 분홍상사화, 위도상사화, 백양꽃, 석산(꽃무릇·시선) 등 총 7종이 농업생명자원 영양체 유전자원으로 인정돼 국가자원으로 관리된다.

영광군은 2013년에도 모시를 농업생명자원으로 등록해 농업생명자원관리기관으로 인정받았다. 농업생명자원기관으로 인정되면 국가에서 농



업생명자원 유지 지원금을 받는다.

고운자 영광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상사화가 농업 유전자원으로 신규 등록됨에 따라 지역의 가장 대표

적인 유전자원을 유지·관리하게 됐다”며 “유전자원의 추가 확보 및 활용을 통한 농업소득 개발에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천홍희 기자 strong@

## 광주 첫 얼음...전남 동부 건조주의보

광주에서 올 들어 첫 얼음이 관측되는 등 입동(7일)이 든 이번 주는 광주·전남에 큰 일교차와 건조한 대기가 이어져 본격적인 겨울 날씨가 시작될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광주시 북구 운암동 광주지방기상청 관측소에서 지난 5일 올 첫 얼음이 관측됐고 이는 지난해 겨울보다 22일, 평년보다는 5일 빠른 것이다”고 6일 밝혔다.

평년보다 빠른 얼음의 원인은 밤 사이 북서쪽의 대륙고기압이 우리나라로 확장하면서 찬 공기가 유입됐고, 맑은 날씨로 인해 복사냉각이 더해진 탓으

로 기상청은 분석했다.

기상청은 이번 주는 확장된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가운데 새벽에는 기온이 푹 떨어지는 등 일교차가 15도 이상 벌어지는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지난 4일부터 광양과 순천에 이어 여수지역까지 건조주의보가 확대되고 있어 당분간 건조특보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기상청은 “전남동부를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해 산불 등 각종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며 “당분간 일교차도 큰만큼 건강관리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민현기 기자 hyunki@

## 전남 섬 지역 수능생에 2박3일 숙박비 지원

전남도교육청이 이번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부터 섬 지역 수험생의 숙박비를 2박3일로 증액, 지원한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2일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전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진남 의원(민주당·순천5)이 “오는 17일 수능에 응시하는 섬 지역 수험생의 숙박비를 1박2일에서 2박3일로 확대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한 것과 관련 이같이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전남도교육청은 그동안 매년 섬 지역 수험생에게 1박2일 간의 교통비와 숙박비를 지원해왔다.

지난 2022년도 수능에서는 진도·완도·신안·여수 등 섬 지역 7개교 학생 154명을 지원했다.

김진남 의원은 “수능이 오후 늦게 끝나 섬 지역 학생들은 배가 고플어 집에 못 가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선박편 등의 교통을 고려해 숙박비를 늘려 지원하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11월 선착순 30분에 한하여  
이장비 지원해드립니다.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수목장\*자연장  
전문

수목장\*자연장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 24시간 상담가능 〉  
**062) 464 - 9190**